
배터리 산업기술 로드맵

「 K-배터리, 선택과 집중으로 글로벌 시장 주도권 탈환 」

2026. 9.

목 차

I. 검토 배경	1
II. 해외 동향	2
1. 시장 동향	2
2. 기술 동향	3
III. 국내 주요 문제점	4
IV. 프로젝트 추진 방안	5
1. 민관 합동의 미래 준비	6
2. 정부 주도의 협력 모델 지원	7
3. 민간 주도의 가격 경쟁력 확보	8
V. 투자 계획	9

[붙임] K-배터리 R&D 로드맵

I. 검토 배경

◇ 〈해외 시장〉 시장은 성능 경쟁에서 **가격 경쟁** 및 **자국우선주의**로 재편

- 배터리 제조 기술의 성숙에 따라, 혁신적 성능 경쟁에서 **효율적 생산** 및 **원가 절감** 중심의 경쟁 시대에 진입하고, 국가별 **역내 공급망** 구축을 추진
 - 특히, **중국**은 자국 내 광물·소재 등 보급형(인산철) 배터리 **공급망**을 완성하고, 기술력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공략 중
- * 글로벌 시장점유율 : (‘21) 韓 31.1% vs. 中 55.1% → (‘25) 韓 15.3% vs. 中 79.4%

◇ 〈해외 기술〉 **가격경쟁력** 및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투트랙 전략

- (**가성비 기술**) **삼원계** 금속 조성비 변경으로 성능 향상과 원가를 절감하거나, **인산철** 원소 추가 또는 구조 혁신으로 **보급형의 성능을 극대화***
 - * 인산철(LFP)의 **저에너지밀도**를 극복하기 위해 소재 변화 또는 팩 구조의 단순화 설계
- (**게임체인저 확보**) **나트륨** 차세대 보급형 배터리로 **리튬의 공급망 리스크**를 극복하고, **전고체** 안전성과 **에너지밀도**를 극대화하는 미래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
 - * CATL(中)은 나트륨(‘26년 下) 및 전고체(‘27년) 배터리의 양산 계획을 발표

◇ 〈국내 현황〉 소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편중된 기술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시장 다변화**를 노력 중

- (**해외 의존도 심화**) 셀社は 저렴한 해외 소재에 의존함에 따라 국내 소재社は 규모의 경제를 미달성 → **가격 경쟁력 저하**
 - * 양극재의 전구체 : 70% 이상 중국에서 조달 / 음극재 : 中(약 65%)·인니(약 25%) 조달
- (**시장회복 노력**) EV용 고성능 삼원계에 편중된 전략 → **단기** 확대되는 보급형 ESS 시장 및 **중장기** 로봇·UAM 등 고부가가치 新산업으로 확장

⇒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수요 기반의 **선택과 집중**으로 기술 포트폴리오를 재정립하는 민관 협력형 **기술 로드맵 수립**이 필요

II. 해외 동향

1

시장 동향

◇ 시장 성장 둔화에 대응하여 주요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역내 공급망 유치를 추진

□ (시장 둔화) 배터리의 가장 큰 시장(70%)인 전기차에 대한 주요국의 지원 정책 후퇴¹⁾로 성장세 둔화²⁾를 유발

1) (美) EV 보조금 폐지('25년), (EU) 내연차 판매 완화 검토('35년 전면금지→일부허용)

2) (EV CAGR) 81%('22) → 24%('25) : (배터리 시장) 1.42 TWh, (EV용 배터리) 1.0 TWh(70%)

○ 경제성이 중요한 ESS의 확대는 보급형(인산철) 배터리로 무게중심을 이동

* EV용 LFP 비중 : ('21) 27% → ('25) 54% [SNE], ESS용 LFP 비중 : 약 95% [야노경제연구소]

□ (중국 부상) 자국 內 광물 및 소재 등 인산철(LFP) 배터리 공급망을 완성하고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

○ 이후 적극적인 해외 진출로 LFP 중심의 가성비 배터리로 글로벌 시장을 잠식

* 글로벌 EV 배터리 점유율(중국 外) : ('21) 韓 57.0% vs. 中 16.1% → ('25) 韓 36.6% vs. 中 49.9%

○ 중국을 견제하고 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美IRA¹⁾(`22.8.)·OBBBA<sup>1)</sup>(`25.7.) 및 EU산업가속화법²⁾(`26년 제정안)을 통한 역내산 보조금 및 우대 제도 추진

1) (IRA·OBBBA) 생산·투자세액공제 혜택으로 제조업 내재화 및 공급망 탈중국화

2) (산업가속화법) 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역내 제조역량 강화 및 중국 공급망 의존 완화

□ (한국 대응) 유연한 시장 대응을 위해 합작법인(JV)을 청산하고, 고성능 NCM에 편중된 생산능력을 극복하기 위해 인산철 생산능력을 확보

○ 전략적 협력으로 확보한 공급 능력은 전기차 캐즘 상황에서 가동률 저하의 원인 → JV 청산으로 수요처 다변화를 위한 유연한 운영성을 확보 중

* (LG엔솔) GM 및 스텔란티스의 지분을 인수, (SK온) Ford와 JV 청산으로 지분정리 등

○ 인산철 배터리 시장의 확대로 기존 생산라인을 전환 중(NCM→LFP)

* (LG엔솔) 미국·폴란드·캐나다 공장, (삼성SDI 및 SK온) 미국 공장 등 라인 변경 중

⇒ 가격 중심의 시장 재편에 따른 보급형 시장 확보와 자국 내 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 강화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

1. (상용 배터리) 중국은 보급형 제품의 성능 극대화를 위한 소재·구조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반면, 셀사가 없는 국가는 소재 및 재활용기술 등에 집중

□ (중국) ^{소재}인산철(LFP)에 망간(Mn)을 첨가(LMFP)하는 소재 다변화 및 구조팩 구조의 혁신(CTP*)을 통해 인산철의 낮은 에너지밀도를 극복

* (Cell to Pack) BYD는 "셀-모듈-팩" 중 모듈을 생략하여 해당 부품(케이블 등)의 공간을 확보

□ (기타) ^美충전율·에너지밀도 향상을 위한 실리콘¹⁾ 음극재(sila, group 14 등) 및 EU규제²⁾(재생원료 사용 의무 등)로 역내 재활용 및 제조 역량의 확보를 추진

1) (실리콘) 흑연에 비해 무게당 에너지밀도가 최대 10배 이상 높고, 급속 충전이 용이

2) (EU 규제) 핵심광물(Li·Ni·Co)의 재활용 비율을 지정, 역내 생산조건을 규정

2. (차세대 배터리) 중국은 나트륨·전고체 등 셀 기술 주도권 확보에 집중투자하며, 셀사가 없는 국가는 소재에 집중하거나 역내 전방산업을 활용하는 전략

□ (중국) △정부 지원, △거대 내수시장을 활용한 실증, △소재 공급망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상용 보급형 시장을 주도한 전략을 동일하게 추진

○ (보급형 나트륨) 리튬 대비 공급망 리스크가 낮고 인산철 공정을 활용할 수 있는 나트륨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추진(CATL, '26.下 양산)

* 나트륨은 리튬 대비 넓고 풍부한 매장지로 가격이 저렴하고 공급망 리스크가 낮아 보급형 분야를 중심으로 인산철 배터리와 시장을 양분할 것으로 예상

○ (고성능 전고체) 정부¹⁾조원의 R&D 투자('24년)와 표준¹⁾의 시행('26.7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기업실증을 통한 전고체 상용화 계획²⁾을 제시

1) (표준) 전고체 등 용어정의 및 분류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

2) (협업) CATL(셀)-니오(EV) 간 협력 개발 → (상용화) CATL은 '27년 제품 출시 예정

□ (기타) ^日EV(도요타)-소재(이데미츠) 간 전고체 협력 개발, ^美고체전해질(솔리드파워) 등 소재 개발, EU스타트업 중심의 소재 개발 및 역내 EV사와 협력

* (日) '27~'28년 내 상용화, (美) 해외 셀사와 협력, (EU) EV사 기반의 협력 등

⇒ 미래 준비를 위한 보급형 나트륨 및 고성능 전고체 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차세대 기술의 패권 확보가 필요

III. 국내 주요 문제점

① (미래 대비 미흡) 거대 시장을 보유한 중국의 기술 투자와 다른 방향의 투자로 인해 경쟁력 저하가 우려

* 고성능 NCM에 집중하여 보급형 LFP 시장을 놓친 사례에 대한 학습이 필요

- 전고체 보다 먼저 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보급형 신소재인 나트륨 배터리의 기술개발 및 EV·ESS 등 실증이 미흡

【현장의 목소리】

★(언론보도) K-배터리 R&D, 전기차 밖으로... ESS·차세대 전지로 보폭 확대('26.4월)

★(셀 S社) 차세대 보급형의 나트륨 배터리 개발 및 완성품 통합 과제가 필요('26.5월 국장 주재 간담회)

② (협력 부족) 국내 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이 부족

- (기술협력 부재) 기업간 독자 전략은 소재·부품·장비에 중복투자를 유도하고, 개발 결과물이 양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공급망 생태계 미흡
- (표준협력 부재) 차세대 배터리의 평가·규격 등 통일된 목소리가 없어 글로벌 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골든타임의 실기가 우려됨

【현장의 목소리】

★(셀 L社) 공용 부품 관점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3사 협력 R&D 추진 필요('26.4월 장관 주재 간담회)

★(셀 L社) 셀의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완성차의 정보 공유가 필요('26.4월 장관 주재 간담회)

★(셀 S社) 차세대 기술 시장의 선점을 위한 글로벌 표준의 선도가 필요('26.3월 국장 주재 간담회)

③ (시장 잠식) 가격 경쟁 중심의 재편에 대응하지 못해 시장 점유율이 급감

- (소재 편중) 고성능(하이니켈) 외 보급형(미드니켈·LMR 등) 소재의 투자에 소홀
- (원가절감 미흡) 셀社의 저가 해외 소재 선호 → 국내 생태계 구축을 저해

【현장의 목소리】

★(소재 P社)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소재개발에 지원이 필요('26.4월 실장 주재 간담회)

★(소재 E社) 국사 소재 구매 활성화로 소재社의 가격 경쟁력 확보('26.4월 실장 주재 간담회)

⇒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나트륨·전고체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집중 투자, △기술 협력 생태계 조성,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의 3대 과제를 발굴

IV. 프로젝트 추진 방안

< 지원 방향에 따른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책임(R&R) >

◆ ▲**나트륨·전고체 배터리** 중심의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위해 산학연관 **협력 R&D** 및 ▲**완제품·셀·소재** 간 **협력** 등을 측면 지원

※ **투자방향** : △정부는 '27년 대형 R&D 신설(5년 국비 약 3,000억원)로 공동협력형 R&D 및 나트륨 배터리 개발을 지원하고, △민간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 등을 추진

※ **기획방향** : 과제 기획 시 **가격 및 성능지표를 정량적으로 구체화**하여 사업화 촉진

□ (미래 준비) **산학연관 협력 R&D**로 **나트륨 배터리**에 집중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

- (정부) 나트륨·전고체 배터리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집중 투자
- (민간) 분야별 효율적인 투자로 나트륨·전고체의 조기 양산체계를 구축

□ (협력 강화) 완제품·셀·소재 간 나트륨·전고체 개발의 **협력 환경**을 조성

- (정부) R&D 사업을 신설하고,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 (민간) 상호 협력을 통해 개발시간을 단축하고, R&D 중복투자를 방지

□ (원가 절감) 규제 대응과 혁신을 통한 자구 노력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 (정부)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 (민간) 공정·소재 혁신, 공급망 내재화 등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개선 방향]

	현황/한계 (AS-IS)	미래상/목표 (TO-BE)
미래 준비	기술에 대한 R&D 투자 정합성 부족 전고체 배터리 개발 투자와 달리 중국 주도의 나트륨 배터리 개발에 대응 미흡	 나트륨·전고체 배터리 투자를 통한 지속 성장 (단기) 나트륨 배터리 투자를 통한 보급형 시장 진출 (중장기) 전고체 배터리 투자를 통한 고성능 시장 선점
협력 강화	완제품·셀·소재사 독자 전략 - 연구, 표준 등 개별 투자로 중복투자 발생 - 미래 기술·시장 경쟁력 약화로 악순환	 완제품·셀·소재사 간 R&D 협력 - 공동 R&D로 성능극대화 및 투자 효율성 확보 - 글로벌 표준 선점을 통한 기술 주도권 확보
원가 절감	시장의 흐름에 따른 적기 대응 실기 - 가격 중심 시장 재편에 대응 미흡 - 보급형 배터리 관련 기술 확보 미흡	 원가경쟁력 확보를 통한 산업주도권 재탈환 - 제도와 연계하여 민간 자체 개발을 유도 - 공장·소재 혁신, 공급망 내재화를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

1

민관 합동의 미래 준비

◆ 빠른 상용화가 예상되는 차세대 보급형(나트륨) 배터리 개발에 정부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산학연간 협력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전고체 지원을 병행

① (나트륨 배터리) 정부는 안전성이 높고 저온 특성이 우수하여 빠른 상용화가 기대되는 차세대 보급형 제품의 개발에 집중 지원

* 나트륨은 리튬 대비 풍부하고 저렴한 특성으로 리튬의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음

※ 차세대 보급형 배터리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셀 및 소재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

① (양극재) 기존의 삼원계 및 인산철의 구조에서 리튬 대신 나트륨을 적용한 소재 개발을 지원하여 보급형 양극재 산업 생태계를 구축

② (음극재) 리튬 원소 대비 무겁고(약 3배) 큰(약 50%) 나트륨을 저장할 수 있는 하드 카본 음극재의 저가격화 및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

③ (전해질) 원활한 나트륨 이동이 가능하도록 전해액의 점도를 낮추고 이온전도도를 높이는 전해질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

② (전고체 배터리) 민간은 상용 배터리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핵심소재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차세대 리튬배터리 개발에 투자

* 상용 배터리의 에너지밀도 최대치는 약 350Wh/kg이며, 최신 제품은 300Wh/kg 초과

○ 더불어, 정부는 에너지밀도·안전성의 극대화 또는 초경량의 차세대 배터리를 로봇, 드론 등에 탑재하기 위한 완제품사와 협력사업을 추진*

* 맞춤형 배터리 개발을 위해 EV·로봇·드론 개발과 전략 공유 및 일치화(자동차·로봇·민군과)

<차세대 배터리 주요 특성 비교>

구분	나트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고체전해질	리튬메탈 음극	리튬황 양극
소재	반응이온 (리튬 → 나트륨)	전해질 (액체 → 고체)	음극재 (흑연계 → 리튬금속)	양극재 (니켈계 → 황·탄소)
장점	가격 ↓·안전성 ↑	에너지밀도 ↑·안전성 ↑	에너지밀도 ↑	무게 ↓
용도	보급형 EV, ESS 등	고성능 EV, 로봇 및 드론, UAM 등		

2

정부 주도의 협력 모델 지원

◆ (협력형 R&D) 완제품·셀·소재社 간 공동 R&D를 통한 효율적인 투자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나트륨 배터리 등 **조기 생태계 조성**

- ① (공통기술 협력) 셀3社의 비경쟁 분야 공통기술(규격¹⁾·소재²⁾ 등)의 공동 개발로 나트륨 등 차세대 배터리의 효율적인 투자를 지원

구분	공통기술 협력의 예
1) 규격	▶ (나트륨 배터리) 치수를 규격화하여 소재·부품·장비의 비효율적인 투자 방지 * 예) 원통형 배터리의 직병렬 조합 기준으로 파우치·각형 치수 제안
2) 소재	▶ (전고체 배터리) "공통 사양 제시 → 개발 → 구매"로 이어지는 협력 * 예) 차세대 집전체(고분자+알루미늄), 음극재(인조흑연) 등

- ② (사업화 연계) 공급망 관점의 수직적인 셀-소재社간 협력 R&D로 소재 개발과 실증을 연계하여 나트륨 배터리의 양산 투자 및 소재 구매를 유도

구분	사업화 연계의 예
방향	▶ 개발목표에 "가격지표" 설정으로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구매를 유도
내용	▶ (나트륨 배터리) △소재社는 목표한 성능과 가격을 맞춘 소재 개발 → △셀社는 R&D를 주관하고 가성비를 갖춘 소재를 구매

- ③ (정보 환류 협력) 전기차의 BMS(이력)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여 나트륨 등 차세대 배터리(셀·팩)를 개발하는 EV-셀-소재社의 협력형 R&D 추진

* (예) 규제샌드박스로 △공공기관은 관용차의 정보를 제공하고, △EV社는 BMS 정보를 수집·분류하며, △셀-소재社는 해당 정보를 신규 배터리 개발에 활용하는 등 협력

◆ (표준 대응) 기술, 평가 등 표준 선점을 위한 **업계 간 통일된 목소리**

- ④ (순주기 협력) 기술과 시장이 개화되기 전, 국내 산업 생태계 간 협력으로 차세대 배터리 표준을 선점하는 등 기술 주도권을 확보

구분	순주기 협력의 예
1단계	▶ 셀-소재社 간 나트륨·전고체 배터리 평가 절차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
2단계	▶ 완제품社 참여로 로봇·드론 등 용도별 요구사항을 담은 표준(안)을 마련

◆ (제도 연계) 규제 극복과 산업 활성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

- ① (순환형 소재) EU 규제*에 대응을 위해 국내 「사용후 배터리법」의 재활용 목표율을 동일하게 제시하여 민간의 R&D 및 재활용 생태계 구축을 유도

* 핵심광물의 재활용 비율 : (‘31년) Co(16%)·Li(6%)·Ni(6%) → (‘36년) Co(26%)·Li(12%)·Ni(15%)

- ② (국내 생태계 활성화) 정부는 △중앙계약시장(ESS)의 평가 항목¹⁾ 조정 및 △광물 관련 특화단지를 조성²⁾하여 민간의 국내 생산 및 협력을 유도

- 1) 공급망 안정, 고용창출, 신속한 대응체계 등 국내 산업 생태계의 기여도 비중을 확대
2) 기초원료의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리튬·니켈 등의 광물 가공 기능을 확충

◆ (원가절감) 정부는 생산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민간은 공정·소재 혁신 및 공급망 내재화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

* 기업의 재료비(광산개발 등) 및 가공비(전기료 등) 절감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생산 세액 공제 도입을 추진

- ③ (공정 혁신) 제조공정의 저탄소화 및 에너지 고효율화 등의 친환경·첨단 공정* 및 핵심 장비 개발·적용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

* △셀社は 전국 건식 공정용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여 약 20%의 제조비용 절감을 기대,
△공정 중 발생하는 폐열 회수 등의 에너지 절감형 新공정 등으로 원가 경쟁력 확보

- ④ (소재 다변화) 인산철(LFP) 수준의 가격에 성능은 우위를 가지는 대체 소재*의 셀 개발로 보급형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보

* 미드니켈(Ni↓), LMR(Mn↑) 등 보급형 소재의 다변화 및 성능 향상

- ⑤ (소재 국산화) 상용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구체¹⁾(70%↑) 및 음극재²⁾(90%↑)와 차세대황화리튬³⁾ 등 차세대 핵심소재의 자체 개발로 국내 공급망을 완성

구분	소재 국산화의 예
1) 전구체	▶ “금속화합물(Ni·Co·Mn)→전구체→양극재” 공정 중 「전구체」 공정을 생략하는 무공침 직접합성법 공정 개발로 전구체 해외 의존도 완화
2) 음극재	▶ 인조흑연 생산에 필요한 고열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폐열을 회수하는 新공정 개발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
3) 황화리튬	▶ 황화리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로부터 황을 회수하여 생산 공정에 재투입하는 자원순환 공정 개발로 원가절감

V. 투자계획

1. 차세대 배터리 민관 공동개발 - 나트륨을 중심으로 전고체 등 집중 지원

- 민관의 전략 일치화를 통해 △차세대 보급형 배터리로 주목받는 나트륨 배터리의 개발과 △전고체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수요연계 사업을 지원

< 주요 사업 내용 >

목표	주요 내용	기간	정부	민간
나트륨 배터리	(계속) 160Wh/kg 급의 나트륨 셀·소재 개발에 최초 지원	'24~'27	201억원	67억원
	(신규) 고용량·장수명을 달성하여 상용화를 위한 추가 개발	'27~'31	460억원	153억원
전고체 배터리	(계속) 전고체·리튬메탈·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	'23~'28	1,283억원	428억원
	(신규) 로봇·드론 등 맞춤형 개발로 조기 사업화 지원	'27~'31	610억원	203억원
합	-	-	2,554억원	851억원

2. 다층형 민관 협력사업 - 협력형 R&D 수행 및 표준 협력 대응

- △협력 R&D 및 △표준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 환경을 정부 주도로 지원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

< 주요 사업 내용 >

목표	주요 내용	기간	정부	민간
공통기술 협력	(신규) 치수 규격화, 공통소재 개발 등 셀·소재 간 협력	'27~'30	96억원	47억원
사업화 연계	(신규) 개발 소재가 양산으로 이어지는 셀·소재·소재 간 협력	'27~'31	483억원	161억원
정보환류 협력	(신규) BMS 정보를 활용한 EV·셀·소재 간 협력	'27~'30	26억원	13억원
주기 협력	(신규) 차세대 배터리 표준 선도를 위한 전주기 협력	'27~'29	15억원	5억원
합	-	-	620억원	226억원

3. 민간 주도의 가격 경쟁력 확보 - 제도와 연계한 원가절감 추진

- 기업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순환형 소재 개발, △국내 생산 투자, △공정·소재 혁신 등에 '30년까지 약8조원의 R&D 및 설비 투자를 계획

< 주요 기업들의 투자계획(안) >

목표	주요 내용	R&D 및 설비 투자
순환형 소재	재활용소재 검증 및 사용후배터리 안정화·관리 시설 구축 등	1,565억원
국내 생산	인프라 확충 및 공정 설비 증설 통한 양산 라인 고도화 등	39,973억원
공정 혁신	배터리 제조·검증 설비의 지능화 및 고도화를 위한 투자 등	27,594억원
소재 다변화	LFP, LMR 등 다양한 보급형 소재 개발 및 양산 투자 등	5,896억원
소재 국산화	LMR 전구체 R&D 및 구형흑연 생산 설비 구축 등	4,300억원
합	-	79,328억원

